

The Nursing Times

Sol-Times 4th Edition

회장 우주희 dmb01100@naver.com
부회장 김유빈 dbqls0506@naver.com
기사부장 이유나 lyn9328@gmail.com
사진부장 최수지 suzv729@naver.com
발행부장 주선미 tjsal2130@hanmail.net

VOL.04 (1.1~1.31)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Woosong University

Published on 02.01-2016 Copyright © Sol-Times

예비간호사로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3학년 임상실습)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소
실습생 인터뷰

청심국제병원
실습생 인터뷰

1. 실습 과목, 병원과 병동 소개

International Global Nursing 과목 실습으로 삼성 서울 병원 국제진료소에서 실습을 마쳤습니다.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추가로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중 하나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간호사로 실습을 가게 되면 주로 검사실이나 진료실 에스코트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통역을 부탁 받게 되니 영어와 자신이 공부하는 제 2외국어의 인사말 정도는 학습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습 과목, 병원과 병동 소개

International Global Nursing 실습으로 청심국제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청심국제병원은 국내 환자는 물론이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그에 맞게 병원 내에 일본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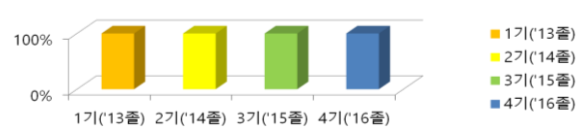


새롭게 바뀐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는 늘고, 시간은 줄고"

2016년 1월 22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기 졸업생들이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렀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관하고 출제하는 간호사 자격시험이며 간호학과 4년 여정의 끝을 맺는 마지막 관문이다.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쉬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기조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6년 처음으로 그 유형을 바꾸어 다소 난해해졌다는 평이다. 시험 문항 수가 총 330문항에서 총 295문항으로 줄고 시험시간이 총250분에서 총 270분으로 늘어났지만, 문제지문이 장황하고 실제 업무의 사례를 다루는 사례중심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응시자들의 많은 사고력과 인내를 요구하였다. 국가고시에 응시했던 한 학생은 "국가고시 시간이 넉넉해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만큼 깊게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어려운 편이었다."며 "앞으로 확실한 이론개념을 갖고 꼼꼼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2015년까지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 새롭게 바뀐 간호사 국가고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지는 바이다.

우송대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4년 연속 100%



국제 간호 서비스 위한 간호상황 시나리오특강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우송대학교 정보과학관 Sol Hospital에서 여러 간호 상황에 맞추어 러시아어 시나리오를 만들어 학습해보는 '간호 상황 시나리오 특강'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신체 내 기관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각 계통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였을 시에 대한 시나리오를 학습하였다. Victoria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은 시나리오 학습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러시아어로 배우고 외우는 알찬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通하는 간호사 되기

(보건의사소통 경진대회)



2016년 1월 27일 우송타워 6층에서 보건실무 의사소통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겨울학기 수강 과목인 보건실무 의사소통을 수강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하였고 심사는 간호학과 강창희 교수와 송지아 교수가 맡았으며, 강양구 교수의 참관 하에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학습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프로젝트를 기준에 맞추어 발표하였다. 다섯 가지 프로젝트는 '개인 차이와 각 개인의 성격의 차이', '3분 자기소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인터뷰', '노인과의 의사소통', '병원 모의면접'의 주제로, 총 11개 팀으로 나누어 매주 각 팀 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각 팀 별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무지개'팀, 우수상은 '말하지 않아도', '텐이칸'팀, 장려상은 '커뮤니케이션', '하이파이브' 팀이 수상하였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삼성서울병원 및 일산병원 동문 모임)



<삼성서울병원 동문모임 인터뷰>

이번 만남을 통해 선우배간의 돈독함을 느꼈고 앞으로 힘든 병원생활 속에서도 서로 지지해주고 소식 전하며 자주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리를 만들어 서로의 근황도 나누고, 기회가 된다면 여가생활도 함께 하는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돈독해지는 선우배 간의 정을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산병원 동문모임 인터뷰>

병원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병원 입사 후 신규간호사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서 서로 지지될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병원에 약 20명의 우송대학교 동문들이 근무하고 있어 병원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교수 Workshop



2016년 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성과 기반Workshop이 경주 The-K Hotel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도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 학습 성과에 대한 논의와 기초 간호, 외국어의 효과적 교육방법을 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

국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회의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 및 참여 계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회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추구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양성을 위해 중동 쪽 연수기관을 알아보기 위해 메일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흥원이 2016년 사업으로 간호사의 중동진출 사업을 구성하면서 기존 경력간호사를 교육시키는 방안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부 때부터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우송대학교에 연락이 닿게 되어 교육과정 등이 어떤지 현실을 파악하고자 진흥원 요청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회의의 주제와 결론

진흥원은 중동진출을 위한 간호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경력간호사는 경험은 풍부한 반면 의사소통 능력 및 중동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적 면허(예: 미국간호사면허 등)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고 간호대학생의 경우 경험은 없지만 의사소통능력이 갖추어진 학생이 많은 장점이 있다는 현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의 특징적인 국제간호교육과정에 의거, 모든 학생이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를 수강하며 특히 아랍어 교과목을 가르치는 유일한 간호학과임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진흥원에서 국내의료인력 해외진출사업의 일환으로 간호대학생을 외국 기관에 파견하여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번 회의와 관련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을 돕기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은 물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송대 간호학과와 목표는 "글로벌 간호리더"입니다. 기회는 기회라고 소리치면서 여러번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기회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의 꿈인 정년퇴직 후 전세계에 뻗어 나가 있는 동문을 방문하는 그 날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